

로컬인사

군산대,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군산대학교는 22일 황룡문화홀에서 2015학년도 후기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군산대 총동문회장, 한국산업단지전북본부장,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장, 내외군 총장을 비롯한 교내 주요 보직자, 교직원, 학부보 등이 참석했다.

이날 내외군 총장은 윤수지 등 261명에게 학사학위를, 임익조 등 110명에게 석사학위를, 황승택 등 7명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내외군 총장은 축사를 통해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졸업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는 인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군산대학교는 1947년 군산사범학교로 개교한 이래 70여 년 동안 학사 4만845명, 석사 4216명, 박사 290명 등 6만5000여명에 이르는 우수인재를 양성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 옥산농협 무인헬기 공동방재

군산시 옥산농협(조합장 박규석)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와 농약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헬기를 이용한 공동방재를 실시했다.

이번 무인헬기 방재는 지난 7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다.

올해로 5년째 맞이하는 무인헬기 공동방재는 해마다 신청하는 농가들이 증가해 올해는 230농가에 1,000ha를 대상으로 살충제, 살충제, 영양제를 혼합해 방재를 실시했다.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재는 살포 고도가 3~4m로 낮으면서 무전조정을 통해 살포하는 농에 정확히 살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농민이 직접 살포하는 시간에 비해 노동력과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경영비 절감과 농약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귀농귀촌 집중홍보활동

익산시는 지역 방문이 어려운 수도권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8월 22~23일 2일간 서울 방배동 소재 수도권 홍보관에서 집중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익산시 귀농담당 공무원과 익산시 귀농귀촌협의회 상담요원들은 서울에 상주하면서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심층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귀농귀촌 상담과 정책설명회와 함께 전문 선도 귀농인들을 통해 귀농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실질적인 귀농정보를 제공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 사업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귀농귀촌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귀농귀촌인 유치를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시민경찰학교 홍보 활동 전개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태)는 22일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16년째 시민경찰학교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웃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을 양성하고, 경찰업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민경찰학교는 매년 1기를 시작으로 13년 10기까지 총 365명이 교육생들이 수료하였고 각종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안내 및 대처요령을 교육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홍보, 지역순찰 합동순찰을 체험하여 지역차안 모나타칭 및 협력치안 활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 하고 있다.

이에 김용태 중앙지구대장은 "많은 시민들이 시민경찰학교에 관심을 갖고 모집에 참여하여 하고 시민들의 자위방법의식 제고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여 민·경 협력치안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시민경찰학교에 관심을 갖고 모집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관공선 노후 심각

운항속도 떨어져 불법어로 행위 단속 어려운 상태 · 행정업무 지원 차질

도서지역의 행정업무지원 및 불법어업지도 단속 등에 투입되는 관공선의 노후화가 심각해 시급한 교체가 요구된다.

더욱이 노후화로 인한 선박사고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우려도 높지만 군산시는 관련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에서 보유 중인 2척의 관공선 중 가장 최근에 건조된 것은 1996년 4월에 건조된 어업지도선 209호(65톤급)로 내구연한 20년을 훌쩍 넘겼다. 또 다른 관공선인 행정선 503호(31톤)는 1992년 건조된 것으로 연령이 무려 24년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군산시 관공선 2척은 내구연한을 모두 넘기는 셈으로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선박으로 분류된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운항속도가 떨어져 불법어로 행위 등 단속이 어려운 상태이며, 원활한 어업관리와 도서 지역 행정업무 지원에도 차

질을 빚고 있다. 특히 운항 중 화재·고장 등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우려도 높다.

실제 지난 6월 행정선(503호)에 타고 있던 군산시 공무원 A씨가 엔진이 멈춘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호스 기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호흡기관을 호스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선박의 노후가 심각해 유지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고 있다. 행정선(503호)의 경우 매년 5000여만 원의 부분수리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정기수리 때마다 1억6000여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산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유지비용 마련을 위해 예산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공선 2척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최소 85억 원(행정선 35억, 어업지도선 50억)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군산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국비 예산 확보가 관

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지자체 지도선 건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에 중단했으나 최근 조산업 위기를 맞아 관공선 6척을 조기 발주 또는 노후화된 기존 선박수리비를 1~2년 당겨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관공선 건조 예산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함께 협력해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선령 초과로 유지관리가 점점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기상이 조금만 나빠도 어청도 등 먼 바다 운항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화물운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대화된 선박으로 대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하고 자원효과 조사 등을 통해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는 물론 수산자원관리·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 순항

현재 지반 콘크리트 기초공사 진행 중 올해 말 골조공사 마무리예정

익산시(시장 정현윤)는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인근에 신축 중인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공정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대지면적 1만2734㎡, 연면적 8600㎡, 지상3층 규모로 주얼리, 보석박물관 등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연계한 아파

트형관광 26개실과 디자인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가공, 전시, 판매, 관광 등 귀금속보석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귀금속보석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통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39억원이 투입되어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8월 현재 지반에 콘크리트 파일을 시공하는 기초공

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말 골조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현윤 익산시장은 "귀금속 보석산업이 높은 기술력 대비 산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사업이 완료되면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과 생산기반 조성 등을 할 수 있어 지역 귀금속보석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 선유도 수산물 판매센터 오늘 착공

군산 선유도에 '수산물 판매센터' 조성된다.

군산 선유도에 주민이 직접 잡은 신선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수산물 판매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군산시는 선유구 마을 지방어항 내에 조성되는 수산물 판매센터를 23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5년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선유도 주민소득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수산물 판매센터는 총 사업비 12억원(국비 10억, 시비 2억)을 들여 연면적 43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민들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센터가 완공되면 주민이 직접 잡은 신선한 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판매자에게 만족감을 주며, 주민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수 해양수산과장은 "내년 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선유도를 찾을



수산물 판매센터는 총 사업비 12억원(국비 10억, 시비 2억)을 들여 연면적 43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민들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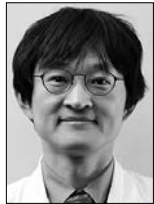
것"이라며 "수산물판매센터 건립과 함께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주민 참여 법인 구성을 지원해 성공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이상관·염승룡 교수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선정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이상관·염승룡교수가 2건의 보건복지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에 각각 선



이상관 교수



염승룡 교수

한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임상시험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관 교수는 "이번에 수주한 두건의 사업은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을 개발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한방 임상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뿐만 아니라 원광대 연구자들의 다양한 임상연구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지원 사업(연구책임자 이상관 교수)에 선정돼 5년 동안 총 62억5천원을 지원받아 국제적 수준으로 개발되는 것으로써 미국·영국·캐나다 등 의료선진국은 임상진료지침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정·개발과 보급·확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CPG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 분야에서도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기준 제시, 진료 근거 확보, 보장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

로 개발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한방 임상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뿐만 아니라 원광대 연구자들의 다양한 임상연구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주얼리리스 임대매장 재계약 업체 모집

9월5일까지 1차 모집 재계약 포기 업체 잔여매장 공개모집

익산시는 왕궁면 동용리에 위치한 국내유일의 귀금속보석판매센터인 주얼리리스 임대점체의 계약기간이 오는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현재 입점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재계약 업체를 모집한다.

현재 주얼리리스에는 전시판매시설에 총 64개 업체와 공방시설에 귀금속수리센터 2개 업체가 입점해 운영 중이다.

시는 공고일 현재 주얼리리스 임대점체를 대상으로 8월22일~9월5일까지 1차로 모집한 후, 재계약할 포기를 하는 업체의 잔여매장에 대해 2차로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제조업체

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다.

재계약 신청은 공고일 현재 주얼리리스 전시판매시설 및 보석공방시설에 입점해 있는 업체로 '익산귀금속산업센터 임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입점자격 및 조건) 및 9조(제 입점 제한)자격을 갖춘 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익산시청 한류패션과(☎859-4384)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는 익산시 홈페이지(www.ksan.go.kr) 공고/고시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작은도서관, 컵케익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군산시 작은도서관 10개소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컵케이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씨앗을 퍼뜨려요'란 책을 읽고 씨앗과 꽃 동물 등의 모양과 함께 예쁜 컵케이크를 만드는 체험강좌이다.

접수는 각 도서관별 정원(1개소당 15명) 마감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수강료 및 재료비는 무료다.

도서관별 운영일정은 ▲미동(3일 오전 10시), ▲흥남(3일 오후 2시), ▲월명(10일 오전 10시), ▲미성(10일 오후 2시), ▲나운(24일 오전 10시), ▲임피(24일 오후 2시), ▲나포(28일 오후 4시), ▲구암(30일 오후 4시30분), ▲서수(10월1일 오전 11시), ▲산포(10월8일 오전 11시30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un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경찰, 스쿨존 교통사고 유발행위 일제단속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22일 관내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방학 기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과속, 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증가했고 개학 후 어린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학부모들의 교통 불행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준수의식을 고취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단속 사항은 신호위반,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주·정차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48건이며, 이 중 15건이 보행 중, 7건은 자전거 타던 중 발생했으며, 특히 5건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문정근기자